

한국전력 사장 공백 장기화되나

정기이사회 안건 미정으로 취소
연말까지 공석 가능성 배제 못해
총선·개각 등 여권 교통정리 주목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이 사퇴한 이후 최대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당초 한전은 지난 2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안건 미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한달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 전 사장이 지난 19일 수리된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내달 중순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와 여권 안팎에선 한전 임추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후임 한전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

적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달 말께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여름철을 넘겨 오는 10월이나 이후 연말까지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전의 공백이 길어져서도 안 되지만, 좋은 인물이 보이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엔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총선 전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스के줄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한전의 자구책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갑작스레 사퇴를 표명하는 등 '후임 시나리오'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여권발 정치 일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공공기관 중 덩치가 크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해 정치적 무게감이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데 이어 한전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두고 현 여권이 불편해했던 것도 한전 사장직의 이 같은 정무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전 사장 후보군은 내년 총선 후보군과도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총선 전으로 접쳐지는 개각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총선 출마자, 공석인 공공기관장,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장관직 등 후보군 사이에서의 여권 내 '교통정리'와 맞물려 후임 한전 사장도 운파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것이 지적이다. 당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이행과 더불어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불거진 한국에너지공대의 출연금 재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전 사장의 경우 6개월 이상 비워둘 수 없어 유력한 총선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석인 기타 공공기관장직에 대해서는 서둘러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총선 전 교통정리 시 정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연합뉴스

광주조달청 주간 입찰동향

(5월 29일~6월 2일)

광주 26억·전남 79억 공사입찰

해남 오시아노 하수처리시설 등

용역분야, 광주청 11건 71억원

조달청은 이번 주(5월 29일~6월 2일) 총 62건, 3,963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2건 중 59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외 무공통도급 대상공사로, 2,058억원 상당(5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8건(789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외 무공통도급공사는 21건(1,269억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72억원, 종합평가 1,307억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726억원, 종합심사 458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

다. 지역별로는 대전시 774억원, 강원도 685억원, 부산시 665억원, 그 밖의 지역이 1,839억 원이다. 광주는 26억2,000만원(2건), 전남은 78억9,000만원(2건)이 집행된다.

6월 1일 광주 농성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전기·통신공사 적격심사(26억 2,200만원), 해남 오시아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적격심사(74억 7,800만원), 6월 2일 익산 국토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국도 17호선 곡성 읍내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적격심사(4억1,500만원) 등이 예정됐다.

용역분야 입찰은 총 233건, 1,365억원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소재 분청 473억원, 서울지방청 328억원,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64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광주청은 11건 71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내달 대우건설 회장 취임

해외시장 개척·확대 주력

지속성장 동력 확보 매진

대우건설은 오는 6월 1일부터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사진)이 대우건설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회장 취임이 불확실한 외부 경영환경 속에서 해외 분야 신규 시장 개척과 거점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취임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현 경영진의 경영활동 독립성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며, 정 회장은 해외 시장 개척과 확대를 통한 대우건설의 지속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독립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안정적이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 회장의 취임은 해외 발주처 및 국가 정상급 지도자 예방 시 신뢰도와 협상력을 높여 회사의 수주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중흥그룹 편입 이후 정 회장은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수많은 해외 정상급 관계자들을 예방했다.

올해도 오만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주 전략을 점검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노력해왔다.

정 회장은 2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국가 정상급 지도자를 예방하며 대우건설 회장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 회장은 지난해 MOU를 체결했던 2건의 비료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연수 기자

로또 6/45(1069회)	
당첨번호	1, 10, 18, 22, 28, 31 보너스 44
등위	당첨금액
1등	1,863,217,554원
2등	55,031,743원
3등	1,446,277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160회)		
등위	중첨번호	당첨번호
1등	5 조	440286
2등	각조	440286
3등	각조	40286
4등	각조	0286
5등	각조	286
6등	각조	86
7등	각조	6
보너스	각조	856561



기아, '웰커밍 데이' 운영

기아는 임직원과 가족이 기아타이거즈 경기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웰커밍 데이 행사를 운영했다. 기아 임채복 매니저(왼쪽 세 번째)가 시구, 시타 이벤트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기아 제공

LH광주전남, 매입약정 방식 민간 신축주택 매입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LH 광주전남본부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매입호수 884호)를 게시하고,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광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공급유형별 세부 면적기준, 주택유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3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매입상세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사업2부(062-360-3349, 3276)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준비해 LH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사업 2부를 방문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